

# 올해는 “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정착의 해”

협회는 지난 2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9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승인된 협회의 97년 사업실적 및 98년 사업계획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주)

## 1. 97년 사업 추진



협회가 작년에 실시한 큰 사업으로는 우선 12월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협조하여 가락시장에 시간당 600kg의 페스티로폴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현대식 감용설비를 설치 완료한 것이다. 이는 대형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페스티로폴 재활용의 시범을 보였으며 포도, 딸기 등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에 스티로폴상자 반입금지의 우려 등으로 인한 사용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EPS 재활용업체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재활용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 행사는 제1회 선린초등학교 2학년(6.3)을 시작으로, 동명초등 6학년(7.8), 보광초등 5학년(10.22), 개봉초등 1학년(10.28) 등 총 4회 실시되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스티로폴을 이해하고, 재활용과 자원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열린 교육의 기회가 됐다. 4월에는 국제행사로서 아시아 EPS 생산자기구(AMEPS)총회 및 아시아EPS 재활용회의(4.16~18)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다양한 매스컴 홍보를 통해 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중의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협회는 환경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폐부자 회수·처리 캠페인을 경남 통영시와 공동으로 실시(3.31)하고 폐부자 소각로 1대를 기증한 바 있다.



지속 사업으로서 발생처 유형별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실적으로는 첫째, 지자체에 감용기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총 113기, 266,538천원을 지원, 2,976톤을 감용했으며, 열풍식 감용기를 교체하는 4개소에는 8,500천원을 지원했다. 둘째, 가전사의 가전완충제 역루트 회수·재활용처리를 공동 추진했다. 코미상사와 협정(97. 3.31)을 맺었으며, 이미 96년도에 협정을 맺은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협회가 지정한 위탁재생업체에 장려금(연간 213,736천원)을 지원하여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재생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셋째, 다량발생 사업장인 가락시장의 감용설비 지원

및 잉고트처리에 협조(12.4)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농·수협, 백화점협회 등에 잉고트 수요업체 알선, 감용설비를 추천하는 회수·재활용 협조 서한을 발송하여 미도파 백화점, 상계수협공판장 등 일부 업소에서 감용기를 자체 설치 운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생잉고트 회수·재활용 추진을 위한 실적으로선 첫째, 페스티로폴 감용물 직체 해소를 위한 잉고트 비축창고(100평 규모)를 임대 운영하였다. 둘째, 재생품 수출선 확보를 위해 무역업체 3개소와 연결, 수출 알선하여 펠릿 및 잉고트 4,300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중앙일보가 주최한 「환경산업전」(9.30~10.3, KOEX)과 한국부인회가 주최한 「에너지 절약 정보 전시회」(11.6~8, 잠실 롯데) 등에 참가하여 참관인들에게 스티로폴 사용의 장점 및 재활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 2. 97년 재활용 실적

페스티로폴 재활용은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발족한 1993년 이후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페스티로폴 분리수거 전국 실시(96.3.1)이후 스티로폴의 재활용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보다 확고해지고 있으며, 97년도 연간 재활용실적은 발생량 총 46,476톤 중 16,889톤(발생량의 36.3%)에 달했다.

현재 페스티로폴은 재생수지, 경량콘크리트, 집착제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표1 참조>

## 3. 98 사업 계획 및 목표

올해는 '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정착의 해'로서 협회는 ▲발생유형별 스티로폴 회수·재활용체제의 공고화 ▲스티로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지속 ▲페스티로폴 재활용률 38%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첫째, 페스티로폴의 회수·재활용체제를 완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①지자체 감용기 확보 촉구 및 정상운영 협력 ②분리 배출 요령 홍보 강화 ③미협정 가전사와 회수·재활용 협정 확대 ④노량진수산시장 등 감용설비 설치 지원 ⑤협회 직영 회수차량 운영 ⑥회수·재활용 모범사례 발굴 ⑦재생품 수출선 확보 ⑧간접수 잉고트 비축창고 임대운영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둘째, 스티로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연안 지역 폐부자 회수·처리 캠페인 실시 ②협회보 '환경사랑' 지속 발간 ③어린이 EPS 재활용업체 견학 지속 실시 ④관련 학회와 세미나 공동개최 ⑤국제회의의 참가 ⑥농산물 EPS용기 포장의 적정성 연구 조사사업 및 선진국 EPS농수산물 포장상자 이용 실태 사진집 발간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셋째, 페스티로폴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재활용률을 38%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환경마크 인증 획득(한림화학·우드랜드 1월22일 획득) 지원 ②재생제품 홍보 자료집 발간 ③재생품 수요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④페스티로폴의 화학적 감용 처리 장비 개발 협조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활용률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표1> 페스티로폴 재활용 실적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총발생량	36,800톤	38,200톤	40,000톤	40,130톤	46,476톤
재활용량	5,000톤	8,010톤	10,420톤	13,280톤	16,889톤
재활용률	14%	21%	26%	33.1%	36.3%